

영암군, 효도복지로 맞춤형 서비스

4대 분야 어르신 돌봄 772억 투입 노인일자리사업 28곳 2083명 ↑ 치매센터·목욕장 등 인프라 확충

영암군이 '가치 있는 노년, 든든한 효도복지'를 추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의 46.8%인 772억원을 어르신 효도복지에 투입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영암군 전체 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의 효도복지지는 △생산적 복지 일자리 △복지 공공 인프라 △건강생활 행기는 통합돌봄 △생활터로 찾아온 배움 등 4대 분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효도복지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도의회 실버정책연구회 등 다양한 기관·지자체가 영암군의 효도복지를 배워가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2,08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관련 사업단 수는 12개에서 28개로 늘었고, 참여자 수도 2022년 1,582명에서 2,083명으로 501명 증가했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해 8월 영암읍에 문을 연 '기찬빨방', '기찬커피 파쇄최선생' 등이 있다. 가게들은 어르신 손맛으로 차린 밥과 차, 간식을 바탕으로 복지맛집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지역 안팎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일하며 누리는 '생산적 복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군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누구나버스'로 어르신의 이



영암군이 '가치 있는 노년, 든든한 효도복지'를 추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문을 연 영암읍에 문을 연 '기찬커피 파쇄최선생'.

아가는 세탁차량은 마을을 돌며 홀몸 어르신의 이불 세탁과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소일거리로 용돈을 버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올해 12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17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선황 2구마을의 전통수제떡, 신유도마을의 전통발효식품제조, 송산마을의 다육이 재배·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2월 영암읍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가 운영에 들어갔다.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도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경로당 객장소과 설치사업을 올해는 확대한다. 경로당 344개소에 순차적으로 객장소과를 지원, 관절 건강에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군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누구나버스'로 어르신의 이

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인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난청으로 의사소통 불편을 겪으나 청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 추진단을 신설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며 통합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암형 통합복지 체계 '영암 올케어'를 구축해 어르신 효도복지에 혁신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초고령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지역은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며 "영암군이 효도복지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존경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군이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 시상식으로 불리는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그린월드어워즈 금상 수상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호평

신안군은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그린월드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월드어워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부, 기업, 단체에게 수여되는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린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정책을 시행, 주민들에게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지급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신재생에너지로 얻어지는 혜택을 함께 나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서게 해 호평을 받았다.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 창립자 겸 CEO 로저월렌스(Roger Wolens)는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공유에 관해 훌륭했고, 30년 동안 이런 종류의 항목을 본 적이 없다"며 "기후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구상이며, 그것은 지역사회를 돕는 새로운 방식으로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민선

7기 박우량 전 군수가 햇빛, 바람을 활용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펼쳐 온 정책이다.

지난 2018년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햇빛, 바람으로 발생한 이익을 연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주민들에게 첫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햇빛연금 누적 수익이 22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누적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전체 군민의 42%인 1만6,341명에게 지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해법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햇빛연금 시행 이후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년 전 179명에 이어 지난해 136명, 올해는 벌써 200명이나 늘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리브 컴어워즈 살기좋은 도시' 금상에 이어 '그린월드 어워즈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없는 섬,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완도군, 군목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

완도군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군목을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하고, 기존 군목인 '동백나무'에서 지역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동백나무를 군목으로 지정·사용해 왔으나 완도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군민 의견을 반영해 완도에서 자생하고 '완도' 지명을 담은 희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새로운 군목으로 지정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1978년 국내 식물 학계의 권위자인 고 민병갈 박사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해 국제학회에 보고된 나무이며, 독특한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사계절 푸른 녹색 잎과 빨간 열매의 관상 가치가 높은 대표 난대 상록수종이다. 빨간 열매는 사랑과 박애 정신을 뜻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의 의미한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호랑가시나무 완도군 제공

클릭! 고향속으로



신안군, 흑산도서 해삼 종자 20만 마리 방류

신안군은 13일 흑산 진리1구 외 7개 지선에 어린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해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5g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다.

수심 5~50m의 자연산 종자가 자생하는 최적의 성장 여건을 갖춘 해조류가 풍성한 암초 해역에 해당 지선 어업인들과 함께 방류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백합 1톤에 이어 이달 말 흑산해역에 전복 19만 마리, 지도선도 갯벌에 참조막 6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2000년 이후 전복, 감성돔, 백합 등 총 48종, 4,07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시 죽교동 자생단체, 이웃사랑 성금 기탁

목포시 죽교동 자생조직단체들이 죽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죽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죽교동 도란도란협동조합이 기탁한 것으로,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박선미 죽교동장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진 값진 나눔이다"며 "소외된 이웃을 세심하게 돌보는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나주시, 공산 월평마을 알림식 제막

나주시는 최근 공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 알림식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월평마을의 새로운 상징물을 함께 축하했다.

알림식은 마을의 이름과 유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아 제작해 외부 방문객에게 첫인상을 전하고 주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상징물로 기능하게 된다.

나주시는 마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들이 자생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이재순 기자